

겨울철 한우 사양관리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발표된 바 있다. 비록 우리 한우가 추위에 강하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위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 혹한기에는 축사내의 온·습도와 환기 등 사육 환경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사육 환경관리

한우는 대체적으로 추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동안 혹한기에 생산환경 임계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윈치커튼 등 보온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두어 혹한이 지속될 경우 보온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재래식 우사의 경우 출입문이나 창문을 비닐로 씌워 지나치게 보온을 하면 오히려 환기가 불량하여 과습되기 쉽고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환기에 주의하고, 섯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어린송아지는 큰소에 비하여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약하므로 우사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송아지 방을 만들어 어미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보온등이나 보온매트를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건초와 어린 송아지 사료,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다 건강하게 송아지를 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에 비나 눈이 우사로 들이치게 되면 체온유지와 우상의 깔짚이 젖게 되므로 윈치커튼이나 처마를 길게 해 이를 막아주고 깔짚도 자주 보충해주거나 교환하여 소들이 편히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다.

소의 사육적온과 생산 임계온도

구 분	최 적		적온범위 (℃)	생산환경 임계온도(℃)	
	온도(℃)	습도(%)		저온	고온
송아지	18	60	13~25	5	30
육성우	16	70	4~20	-10	32
번식우	10	70	0~20	-10	32
비육우	16	70	10~20	-10	30



<그림 1> 어린송아지 방

2. 겨울철 사양관리

겨울철에는 소가 자신의 체온유지를 위하여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 외기온이 낮아져 영하 5℃일 때 사료섭취량은 약 3~8%정도 증가하게 되고 영하 5~15℃일 때는 8~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평상시의 사료량으로는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사료급여량을 평시보다 10~15% 정도 더 주어야 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벃짚위주의 조사료가 급여되기 때문에 무기물 등 미량영양소가 결핍되기 쉽고, 그로 인하여 피부질환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타민·광물질 제재를 우방에 비치하여 소가 항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겨울이 추운지역에서는 급수조가 얼지 않도록 보온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겨울철에 얼거나 부패된 사료를 급여하면 소화기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식 섬유질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서는 사료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2> 겨울철에는 사료급여량을 늘려준다

임신우는 주로 배합사료와 볏짚에 의존해 사사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타민 A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료첨가제(비타민 A,D,E 제제)의 형태로 분만 2개월 전부터 5~10g, 분만 후 포유기 3개월간 10~20g 정도 보충시켜주는 것이 건강한 송아지의 출산과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임신우는 분만 예정일 2주전부터 오후 5시 이후 모든 사료를 하루에 1회만 급여하여 야간 분만을 피하고 주간에 분만하도록 유도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동사에 대처토록 한다. 송아지가 출산되면 배꼽처리를 해준 다음, 즉시 마른수건으로 체표면의 양수를 닦아주고 헤어드라이기로 털을 말려 체온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한다.

비육우는 급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 급수 부족은 사료섭취량 저하와 체액의 염류과다로 요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요석증은 15개월령 전후부터 염화암모늄을 투여하여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급수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히터를 이용한 급수조나 보온물통을 이용하고, 특히 혹한기에는 급수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에 소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음수온도를 15~24℃ 정도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림 3> 비타민 · 광물질 급여

3. 위생관리

기생충에 오염된 사료의 섭취, 방목지, 깔짚 등에 의해 감염되었을지 모를 내부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철에 구충제를 투여하여 기생충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본격적인 혹한이 시작되기 전에 광범위 구충제를 반드시 투여하도록 한다.

한편 겨울동안에 깔짚을 너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 지나치게 질게 되면 소가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한기를 느껴 편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한시에는 우상이 동결되어 소가 미끄러지거나 발굽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깔짚이 너무 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청명하고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키고, 피부손질도 해주어 피부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림 4> 곤죽이 된 우상 깔짚(동결 위험)

겨울철에는 송아지의 설사와 호흡기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되며 폐사율도 높은 편이다. 갓 난 송아지에게 처음 초유를 먹이기 전에 어미소의 유두에 묻은 분뇨가 섭취되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주고 유두 주위의 털을 깎아준 다음 4시간 이전에 초유를 충분히 섭취시켜 면역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특히 송아지나 육성우들이 있는 우사의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있다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버짐이나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윈치커튼 등으로 사방을 막지 않도록 해 환기가 잘 이루어지게 하며, 약간의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해 치료하도록 한다.

또한 겨울철 먹이 부족 등으로 야생동물들이 축사에 출입하여 가축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구서제를 투약하여 쥐의 피해도 예방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으로 가축 악성질병을 예방토록 한다.

4. 월동 조사료 보관관리

겨울동안 급여할 건초, 볏짚 등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결속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비나 눈에 젖지 않게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총채보리, 수수류, 생볏짚 등으로 제조한 곤포사일리지는 보관중 쥐로 인해 포장재에 구멍이 뚫리면 공기가 통하고, 빗물이 스며들어 부패하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테이프로 밀봉하고 쥐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청보리, 이탈리아나라이그라스, 호맥 등 월동 사료작물 포장은 겨울을 나는 동안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어야 한다.



<그림 5> 생볏짚 곤포와 청보리 포장



<그림 6> 월동용 조사료 보관